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모임 회의록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1. 개 요</td></tr>
<tr><td>주 제</td><td colspan="4">5차 회의</td></tr>
<tr><td>일 시</td><td>2025. 12. 07.(알)
13:00~15:00</td><td>장 소</td><td colspan="2">창원시 시티세븐
투썸플레이스 카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구성원</td><td>참석자</td><td colspan="3">김건희, 김도윤, 민경택, 박시영, 왕정현, 이부영, 이창현, 황진혁
(지용준사무관님, 백숙현주무관님)</td></tr>
<tr><td>결석자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회의 주요내용
(요약)</td><td colspan="4">-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
-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문화예술모임 활동성과 정리
- 자유토론 및 행정 답변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2. 협의/결정사항</td></tr>
<tr><td>항목</td><td colspan="2">결정사항</td><td>담당자</td><td>일정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3. 요청사항(도 담당부서 등)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○
○</td></tr>
</table>

4. 주요 발언 내용

발언자	발언내용
김건희	- 경남 청년페스타 기획단에 참여하게되며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음 - 함안에서 도시재생 일을 하고있으며, 기획단 회의는 못가고 페스타 행사 당일에 참석하여 교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징원 역할을 하였음 - 교류행사에서 기존의 모집인원보다는 적게 왔지만 인원이 많았으면 조금 더 의미있는 행사가 도hoT을 것이라 생각함 - 문자를 통해 공지가 오다보니 연락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, 경남청년네트워크가 지역적으로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의 교통편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함 - 참석을 조금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과 상세한 설명 등의 안내가 필요하며, 내년에는 다른 분들의 정책제안 활동 등에 참석 해보고 싶음
김도윤	- 모임기 1명의 지역 위주 활동이 될 수 있으니 모임지기 외 각 지역별 부모임지기 등의 역할과 일을 나눌 수 있도록 활동이 되었으면 함 - 함양 참석의 행사가 겹쳐서 참석이 힘들었으며, 청년페스타, 인플루언서 행사, 요트, 요리 등의 구성이 재밌었으나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넉넉하게 짰으면 함 - 도지사님의 의전 행사 등 중요한 의전 행사 이전 이후에 여유를 두었으면 함 - 1년 동안 주무관님 사무관님께 너무 고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음 - 내년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해서는 대학생 및 고3 학생들의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였으면 함
민경택	- 예전에는 분과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도에서 권한을 주었는데, 모임지기로 권한이 약화되었으나, 모임지기의 실제적 업무량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역할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하실 것인지 - 청년 버스킹 행사 참석, 퍼포먼스와 이벤트성 이미지 청년네트워크라는 것이 참석을 했을 때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	- 정형화된 틀로 네트워크 위원들이 정보를 얻었을 때 더 전파시킬 수 있으니,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 관련 지식이나 내용들에 발간물 등이 있었으면 함
박시영	- 산청으로 이직을 한지 얼마 안돼서 오프라인 참석은 힘들었으나, 온라인 참석은 많이 하였음 - 온라인 회의에서 느꼈던 점은 공지방이 따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- 문자가 따로 오기는 하나, 미션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다보니 공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였으면 함. 내용 분간이 많이 안돼어 있음 - 미션에 관련된 주제들이 문화예술모임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여서 경계를 두지 않는 것도 좋지만, 너무 다양한 분야가 올라와서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들도 모두 참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- 산청인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참여를 하고 있다보니 여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 해주는 것에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음
왕정현	- 청년페스타 행사 및 미션에 따라서 회의 주제가 정해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- 행정이 바라보는 방향성과 참석하는 청년들 간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서 내년 네트워크 행정이 운영되었으면 함
이부영	- 작년에는 참석을 꽤 했었으나, 직업상 행사와 공연을 하는 입장으로서 일이 있어서 참석 자체가 힘들었음 - 직장인과 행사 참여에 대해 하지 못해 참석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게 연간 일정이 정해졌으면 함 - 내년에는 개선이 된다면 일정에 맞춰 참여하고 싶음
이창현	- 회의참석은 공식으로 처음이며 통영, 함양 등 행사 참여는 많이 하였음. 청년들이 행사를 다니면서 제안을 한거나 한 활동이 없었음. - 청년페스타, 함양 교류회도 재밌게 다녀왔음. 알찬 행사였다고 생각함

	- 아쉬웠던 점은 하루 안에 진행하기 힘든 일정 소화였다고 생각했으며, 1박2일이나 하루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나눠서 진행했으면 함 - 참석하시는 분들 마다 일정이 있으시니 적당한 참석의 시간이 요구되었으면 좋겠음 - 추가적 건의: 단톡방에 인원이 현재 한분한분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담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셔서 단톡방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황진혁	- 올해는 기준 없이 투표를 받아서 진행됐었으며, 회의 참석 및 활동 참여도 등의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었음 - 청년들을 동원하는 행사는 차라리 예산을 아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면 함 - 청년주간행사 또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사천의 경우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행사가 필요함 - 선거 전에 내년 계획들이 함께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- 분과별로 분과에 맞게 인터뷰 진행 등의 미션 활동이 더 맞지 않겠는가. 자발적인 활동의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음
회의사진	

모임지기	왕정현	(서명) 왕정현